

다산포럼

호명(呼名),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충남 당진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에 다녀왔다. 목련, 가시나무, 무궁화, 동백나무, 단풍나무가 각 수백 종에다 총 1만5천 종이 넘는 식물을 지닌 국내 최대 수목원이다. 꽃과 나무들이 좌우로 촘촘한 5월의 색깔을 걷는데, 무심한 사람들 틈에서 한 여학생이 수목의 그 많고 복잡한 이름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적느라 분주하다. 흐뭇하고 기특해서 같이 걸으며 이런저런 말을 나눴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은 나무와 꽃의 이름을 많이 알수록 숲을 더 잘 파악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 어휘를 많이 알수록 그 분야에 더精通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아는 만큼 친숙해지기 마련이라는 뜻일 텐데, 5개의 꽃 이름을 아는 사람과 50개를 아는 사람이 꽃밭을 거니는 감회가 다

르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나는 평생 종(鐘)이었으나, 누가 나를 들어 쳐 줄 때까지 내가 종인 줄 몰랐다.” 미국 작가 딜라드(Annie Dillard, 1945~)의 말이다. 산다는 것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 주는 무수한 이름들과의 조우여야 하지 않을까. 이름을 불러 준다라는 상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기억하고 안심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낯선 이와의 첫 대면이, 피차의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이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하는 연유 또한 거기에 있으리라 믿는다.

단테는 ‘신곡’ 지옥 편에서 지옥의 형벌을 지상에서 범한 죄와 닮거나 대비시키는 방식(contrapasso)으로 그리곤 했다. 신약성서의 복음서에 나오는 걸인 나사로 는 천국에 가셔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지옥에 간 부자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채 그냥 부자로 묘사된다. 이는 필시-단테의 상상력을 빌리면-지상에서 “오로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참세기 11: 4) 부와 권력과 명예의 바비탑을 쌓으며 평생을 보낸 이름이 마침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리라.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 주지 않는 투명인간들의 세상,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는가.

조지 오웰은 그런 세상을 전체주의에 빚었다. 그는 파시즘과 스탈린주의가 마

각을 드러낼 무렵, “노예제가 돌아온다”고 관찰하며 노예제에 근거했던 고대문명들이 4천 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섬뜩한 사실을 환기시킨다. 특히 그를 전율케 했던 것은 엄청난 세력의 문명이 수천만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면서도 그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른다. 그리스-로마를 통틀어 우리가 이름을 아는 노예가 있는가. 내겐 두세 명의 이름만 떠오른다. 스파르타쿠스, 에픽테투스, 이슬... 나머지 는 완전한 침묵 가운데 사라져갔다.”

그는 인류가 향하는 곳은 세계의 멸망이 아니라 노예제의 재등장이며, 이름 없는 노예들의 사회는 고대 노예 제국처럼 가공할 안정성을 지닐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의 마지막 소설 ‘1984’가 보여 주듯이, 이런 추세는 과학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는 영국의 가장 큰 서점 체인 ‘워터스톤스’ 본점이 있다. 널찍한 공간에다 안락한 소파들이 곳곳에 있어서 런던에 갈 때마다 자주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영어로 쓰인 거의 모든 책들이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마당에, 이 무심하고도 분주한 종이책들의 수요 공급 현상이 반갑기 그지없다. 무엇보다도 잘 분류된 서가의 ‘전기(傳記) 코너’는 끝

임없이 추가되는 전기, 자서전, 회고록, 서간집, 일기들로 인하여 갈 때마다 나를 설레게 만든다.

정치, 문학,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쏟아지는 이런 ‘일차 자료들’이 야말로 수많은 ‘사사로운 이름들’이 공적으로 복원되는 현상이다. 그런 이름들의 그물(網)이 영웅을 만들고 모든 사적인 것들이 마침내 정치적이 확인되는 곳이 또한 거기다. 이런 기록들이야말로 일단 기록들의 밑거름이 되어 무수히 가지쳐 나갈 터인데, 지식 시장의 성장이란 것도 기록들의 역사적 축적에 다름 아니리라 는 믿음이 그래서 자연스럽다.

기록이 부실하면 호명도 없고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친밀함도 없을 테니, 그때 공동체는 부실하고 취약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검(劍)으로 일어난 자 검으로 망한다 했거니와, 배제하고 속아 내며 이름 지우는 일에 몰두하던 지난 정권은 수첩으로 시작해서 수첩으로 가장 치욕스런 형태의 몰락을 맞았다. 수첩 외 기록들은 삭제되거나 봉인되었다던가. 부디 새 정권이 그간 잊히고 밟히고 묻혔던, 광장과 거리와 철탑 위와 골방과 무대 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해서 공동체와 역사를 복원하고 다시 세우는 일에 꾸준히 나서 주기를 바란다.

정춘 특·특

문화도시 광주와 청년기획자의 역할



윤 현 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이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온다.

문화예술 분야의 젊은 전문인력 층으로, 증폭되는 콘텐츠가 되풀이되면서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육성·양성 요구가 이어지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기획을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인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런 움직임도 점차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들을 일컬어 ‘청년문화기

획자’라 부른다.

청년문화기획자는 기존 문화전문 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별개로, 보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기획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시도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분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력에 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기획인력’에 대한 수요와 강화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청년문화기획자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넘어 욕망의 실현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기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기존 문화예술과 관련한 조직에 소속돼 기획·운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공유기업, 커뮤니티 기획 등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그동안 예술은 이를 직업으로 삼는 특정한 사람인 예술가의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한 제반의 교량작업, 즉 보여주는 시간과 장소, 볼 수 있는 사람의 선택, 조건 등은 이미 예술가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뜻이다.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만큼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기획자다. 기획자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기획에서부터 운영과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좋은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를 시민과 문화향유자가 만날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광주’가 진정한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매자’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기획을 펼쳐낼 수 있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모든 창의적인 것은 모두 시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누구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고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보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노력하는 지역 청년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획과 예술활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다양한 문화제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포털사이트에 공유해 프로젝트 실행 자금을 모금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그 예다.

청년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

의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문화예술 발전기금’ 같은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해볼 수 있겠다. ‘청년’이 가진 도전적 활동과 가치, 철학을 발굴하고 길러내 더 많은 기회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예술인과 문화기획자를 위한 거점형 창작공간 마련도 중요한 문제다. 좋은 생각과 사람들은 모였을 때, 그 힘은 배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활동들이 한곳으로 모인다.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청년예술가와 기획자들이 협력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자연스레 기획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공간을 통해 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인큐베이션 되고, 각 분야 활동 간 융·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기획들이 생산될 수 있다. 이런 창의적 모습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지역 내 문화적 자양분으로 숙성되고, 그 에너지가 시민들 삶의 영감으로 전해져야 한다. 그럴 때 광주는 외견만 성장하는 문화도시가 아닌 내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

기 고

체계적인 이민자 실태조사 필요하다



안 재 학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 지 30여년 가까이 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해외에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제조업 부문의 급격한 노동력 부족과 출입국 규제완화가 맞물리며 저임금의 아시아 국가 노동자들이 쉽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을 상대로 한 결혼이민자도 급증하면서 2016년 현

재 한국국적의 귀화자와 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이민자는 전체인구의 4.3% 수준인 21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국가임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놀라운 속도로 다문화국가인 현상을 드러하게 됐다.

이민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 2021년에는 300만,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8% 수준인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10년 뒤면 전체 인구의 10%가 이민자로 구성된 본격적인 다문화국가 시대가 열리게 된다. 다문화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세대의 사회통합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국가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적이 도움이 되는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자 문제로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 경기는 좋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은 이민자에 대해 포용적이다. 반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같은 선홍 국가에게 이민자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빼앗는 위협적 존재다. 실업률이 높은 스페인, 그리스 등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실패를 거울삼아 외국인 유입과 체류관리 및 통합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이민자 체류실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국내 거주 이민자 관련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2016년 시험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매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계청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비정기적이고 분산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외국인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실시·관리하여 통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2017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3일부터 6월6일까지 15일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2012년 1월 1일 이후 한국으로 귀화한 만 15세 이상 귀화자이며, 전국적으로 1만8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지역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1122명, 전북지역 598명, 제주지역 454명의 이민자가 그 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근무여건 등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생산되어 사회통합과 국적이 보탬이 되는 이민자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 說

4대강 사업 의혹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된다. 심각한 녹조 발생 우려 때문이다. 영산강 유수량 급감과 이에 따라 녹조 현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보 개방과 함께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이는 행정적인 지시일 뿐이지만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여부도 규명하겠다고 했다. 사정의 칼끝이 4대강 정책 입안자는 물론 감사 결과에 따라 이전 대통령에게로 향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조 원의 천문화적인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책으

로 내세웠지만,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 왔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4대강 사업 감사가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되기도 했다.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답합 등에만 집중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감사는 ‘면피성’이었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는 지금이라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비리가 있었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 “사람이야 투표를 잘못해서 고통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강물은 왜 썩고 물고기는 왜 죽느냐”고 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5·18 교육’ 전국 확대 늦었지만 당연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교육 전국화’가 마침내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시 교육청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확대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석문 제주시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교육 전국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15개 시도교육청은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5·18 인정 교과서와 5·18 교육 참고용 도서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으며 2014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에 파견하는 ‘오월 민주 감시단’을 전국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4·19혁명, 제주 4·3사건, 부마항쟁, 대구 2·28사건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보조 교재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15개 교육청이 역사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5·18 교육’에 뜻을 모은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사실 5·18 교육은 그동안 일부 교육청이나 전교조 중심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다 보니 매년 5·18 추기가 되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5·18의 정신을 폄하하거나 왜곡시키는 보수 정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5·18 교육은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인천과 경북 교육청 역시 교육에 지역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 빨리 5·18 교육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로체’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시계나 자동차 브랜드명으로 사용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했기 때문이다. 로체(해발 8516m)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의 어개 격인 사우스 콜에서 북기면 봉우리 이름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 ‘남쪽’이란 뜻의 ‘로’(L.ho)와 ‘봉우리’란 뜻의 ‘체’(tse)가 합쳐져 ‘에베레스트의 남쪽 봉우리’를 뜻한다.

로체가 시아에 들어왔다. 마침내 도착한 칼라파타르(해발 5550m)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라보는 고산이었다. 검은 피라미드 모양의 에베레스트와 그 옆의 로체 등 히말라야 산군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맑은 날씨임에도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끊임없이 구름 같은 설연(雪煙)이 피어났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몸을 날려 버릴 듯한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곳 역시 꽤 빠른 바람이 몰아침을 알 수 있었다.

로체 등정

다. 비록 그곳에 오를 수는 없지만 ‘신의 영역’을 두 눈으로 바라저리까지 걸어가는 트레킹이었다. 해발 2840m에 자리한 루크라 공항에서 내려 남체를 거쳐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와 칼라파타르를 목적지로 하는 일정. 매일매일 인생 최고의 높이를 갱신하며 힘들게 한 발 한 걸음을 지니는 듯했다. 그나마 고산병 증세가 미미해 다행이었다. 3000m대 울창한 산림을 지나자 4000m대 이상부터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없는 황량한 풍경으로 바뀌었다. 발파 작업을 끝낸 채 석장을 지나는 듯했다. 주변 산군(山群)은 만년설을 머리에 인 설산이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며 에베레스트와

다. 비록 그곳에 오를 수는 없지만 ‘신의 영역’을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민 대장이 로체 등정에 성공했다. ‘희망 나눔 2017 한국 로체 원정대’를 이끄는 김 대장은 지난 19일 오전 8시(한국시각 11시 15분)에 세르라 두 명과 함께 로체 정상을 밟았다. 이날 자정에 4캠프(해발 7800m)를 출발해 눈보라와 강풍을 뚫고 8시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인들에게 ‘희망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김 대장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